

세종 말뭉치를 이용한 ‘-느라고’ 의미 제약 연구

안성민
전주대학교
smsmsm@jj.ac.kr

Research on Meaning Constraints of '-Neulago' Using the Sejong Row Corpus

Sung-Min Ahn
Jeonju University

요 약

‘-느라고’의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에 대하여 연구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 교재는 다수의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느라고’의 후행절에 부정 의미 제약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교재에서 후행절에 부정 의미의 제약이 없다는 연구 내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본 연구는 ‘-느라고’의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에 주목하여 실제로 ‘-느라고’가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을 갖는지, 만약 제약을 갖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 문어 원시 말뭉치에서 ‘-느라고’의 문장 1,601개를 추출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통시적 변화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 교재들이 집필된 2000년대의 문장만 선별하여 후행절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23개의 문장 중 98개 문장, 33.3%가 후행절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느라고’가 단순히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다. 부정 제약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장의 의미를 살펴 목적의 의미를 갖는 ‘-느라고’와 이유의 의미를 갖는 ‘-느라고’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느라고’의 후행절을 다시 분석한 결과 이유의 ‘-느라고’에서는 후행절 부정 제약이 실현되고 있었지만 목적의 ‘-느라고’에서는 부정 제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느라고’가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가지며 이유의 ‘-느라고’로 실현될 때에만 부정 의미 제약을 갖는다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 얻어 냈다.

주제어: ‘-느라고’, 의미 제약, 후행절, 부정 의미, 세종 말뭉치

1. 서론

한 언어에는 다양한 문법이 존재하며 각각의 문법은 형태적·통사적 형식을 준수하며 문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문법이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문법에 수반되는 의미적 제약을 만족시켜야 한다. 언어를 교육할 때에는 이러한 제약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따라서 많은 교육 교재들이 문법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된다. ‘-느라고’의 통사적 의미적 제약에 대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느라고’는 시간성을 갖는 동작동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시상 접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둘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며,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는 시간 겹침대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후행절에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없다. 넷째, 후행절은 부정 의미의 제약을 갖는다. 그런데 마지막 제약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견을 보이는 ‘-느라고’의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느라고’의 후행절에 부정 의미 제약이 있다는 연구와 그런 제약이 없다는 연구가 교육 교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교육 교재의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 말뭉치를 분석한다. 말뭉치 자료를 바

탕으로 ‘-느라고’의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의 범위를 밝힌다.

2. 관련 연구

후행절에 부정 의미의 제약을 갖는다는 연구에 대해 백봉자(1980)[1]는 ‘-느라고’ 후행절에는 대개 무엇을 못한다든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혹은 무슨 제약을 받는다는가 하는 것들이 쓰인다고 했고, 김명희(1980)[2]는 심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후행하는 주절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상복(1981)[3]도 ‘-느라고’ 구문은 후행절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온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이숙(1985)[4]은 “논문을 쓰느라고 그동안 소설책을 많이 읽었다.”, “한 달 동안 영화 촬영을 하느라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면서 ‘-느라고’가 전혀 부정적이라거나 제약된 의미와 관련된다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며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미영, 구정영(2010)[5]은 후행절이 긍정형이어도 그 내용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잔치준비를 하느라고 그 가게에 못 갔다”와 “잔치준비를 하느라고 그 가게에 갔다.” 둘 다 정문이 되는 것은 긍정형으로 실현된 문장의 의미가 그 가게에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느라고’의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에 대한 엇갈린 연구 내용이 교육 교재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교육 교재 분석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느라고’는 보통 핑계나 변명의 용법으로 소개되며 주로 후행절에 부정의 의미를 수반해야 하고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다음은 각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느라고’에 대한 기술이다.

<표1> 한국어 교재에서의 ‘-느라고’ 제시

교재	용법 설명
서울대 Active Korean 4 (70쪽)	‘-느라고’ is added to a verb stem and shows that the preceding sentence is the cause or reason of the following sentences. It is usually used to make excuses or tell reasons when you couldn't do something or you have a negative result.
서강 한국어 3B 문법 단어 참고서 (19쪽)	· ‘-느라고’ is used when a negative result occurs due to choosing between one of two things to be done. The preceding clause and the following clause refer to the same period of time. In the clause following ‘-느라고’ there is a verb or an adjective describing a negative result of the preceding clause. Usually when verbs are used in the following clause, the ending is a negative form such as ‘-지 못하다’, ‘-지 않다’, etc. When adjectives are used they have negative connotations such as ‘바쁘다’, ‘힘들다’, ‘정신이 없다’, etc. ‘-느라고’ is frequently used when giving an excuse about what the person had to do but couldn't do.
연세 한국어 3-2 (307쪽)	It is used when due to the first action the following action cannot be done or the result is negative.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이화 한국어 3	‘V+느라고’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 때 계속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임을 나타낸다. 주로 어떤 일을

(119쪽)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 핑계나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한다.
서울대 한국어 3A (244쪽)	· 하지 못한 일이나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 후행절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바쁘다, 힘들다, 정신없다’ 등과 주로 결합한다.
경희 한국어 문법4 (16쪽)	· ‘-느라고’는 동작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한 것이 원인 또는 이유가 되어 뒤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한다. · ‘-느라고’는 ‘바쁘다, 늦다, 힘들다, 피곤하다, 정신없다’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느라고’의 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교재에서는 해당 과의 주제를 통해 ‘-느라고’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열린한국어 중급1』 8과에서는 사과하기, 변명하기 등의 기능 부분에서 ‘-느라고’를 교육하고 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II』 19과에서도 변명이라는 주제에서 ‘-느라고’를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주요 한국어 교재에서는 후행절에 부정적인 결과가 와야 한다는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말뭉치 분석

교육 교재가 모두 2,000년대에 집필된 것을 고려하여 공식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0년대의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1,293개 파일, 1,980,753 문장, 35,882,340어절의 세종 현대 문어 원시 말뭉치를 선택하였다. 말뭉치에서 ‘-느라고’가 사용된 문장 1,601개를 1차로 추출하고 2,000년대의 문장 377개를 2차로 추출하였다. 다시 중복 문장과 ‘-느라고’가 종결형인 문장을 제거하여 후행절의 부정 의미 분석이 가능한 323개 문장을 선별하였다. 전처리를 통해 얻어낸 문장을 일일이 검토하여 ‘-느라고’가 사용된 문장의 후행절에 부정어나 부정 표현이 얼마나 존재하며 부정 표현이 없는 문장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후행절에 부정의 의미가 오는 문장은 225개로 전체 69.6%를 차지하였다. 직접적인 부정어 사용으로 부정의 의미를 주는 문장은 ‘없다’ 부정이 사용된 문장 22개, ‘못’ 부정을 포함한 ‘-지 못하다’ 부정 문장 17개, ‘안’ 부정을 포함한 ‘-지 않다’ 부정 문장 8개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부정어 사용으로 부정 의미를 수행하고 있는 문장이 총 45개로 부정 의미 후행절의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나 핑계 등을 나타

내기 위한 술어 사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부정 의미로 사용된 술어의 종류와 빈도

<그림1>에 볼 수 있듯이 고생하다 16회, 바쁘다 16회, 애쓰다(애먹다 포함) 10회, 늦다(늦게 포함) 9회, 정신없다 9회, 힘들다(힘들어하다, 힘이 부치다 포함) 6개, 맘 홀리다(맘에 절다, 맘으로 먹감다 포함) 4회, 피곤하다 3회, 킁킁대다(킁킁거리다 포함) 3회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후행절에서 부정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는 교육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행절에 긍정 의미의 문장이 오는 경우도 98개 중 33.3%나 차지하였다. 후행절 긍정 문장은 다음과 같다.

<표2> 후행절 긍정 의미 문장

문장	출처
대학원 진학 준비하느라고 그쪽 대학에서 어학코스를 밟고 있거든요.	꽃그늘 아래 /2002/창작과비평사
아이들은 백과사전을 찾느라고 열심이다.	녹색평론 43호 /2001/녹색평론사
손님 시중을 드느라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발로자를 위하여 /2003/창작과비평사
노보 원고 넘기느라고 인쇄소에 갔습니다.	랍스터를 먹는 시간 /2003/(주)창비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집과 도서관과 학교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내 첫사랑 주희 누나 /2001/문학사상사

말뭉치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느라고’가 부정의 의미 제약을 갖는다고 규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느라고’가 이유나 원인에서 사용되는 문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문법 ‘-어서’나 ‘-니까’의 경우도 후행절에 부정의 의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바빠서 학교에 못 갔다.”, “일이 있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늦었으니까 가지 맙시다.” 등 이유와 원인의 문법은 모두 부정적인

결과나 변명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느라고’에 부정 의미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69.6%는 충분하지 않은 결과 값이다. 즉, 후행절에 부정 의미를 수반하는 것이 전적으로 ‘-느라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부정의 의미를 수반하지 않아서 비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느라고’ 후행절의 부정 의미 제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그 요소를 찾기 위해 말뭉치의 예문을 시간별, 의미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느라고’가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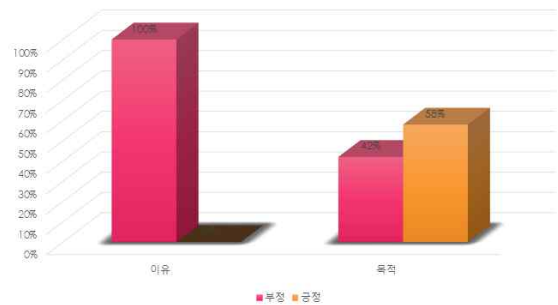
- 가. 오늘 집들이에 왔다가 지신밟기 하느라고 전화걸 겨를이 없었어.(꽃그늘 아래/2002/창작과비평사)
- 나. 엄마를 기다리느라고 바윗돌 그늘에서 쉬기도 했다.(내 영혼의 상처를 찾아서/2001/문학사상사)

(가)의 예문은 ‘-느라고’가 이유와 원인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나)의 예문은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느라고’는 동작의 동시성이라는 문법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의 문법과 달리 이유와 원인의 의미에 더해 목적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말뭉치에서 확인한 ‘-느라고’의 의미로 문장들을 모두 분류하였다.



<그림2> ‘-느라고’의 의미 분류

‘-느라고’의 의미에 따라 문장을 분류한 결과 전체 323문장 중 목적의 ‘-느라고’는 168개로 52%를 차지하였고 이유의 ‘-느라고’는 155개로 4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느라고’의 의미 차이가 후행절의 부정 의미 제약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3> ‘-느라고’의 의미에 따른 후행절 의미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이유의 ‘-느라고’ 문장

155개는 후행절에 모두 부정 의미가 왔는데 목적의 ‘느라고’ 문장은 후행절의 42%만 부정의 의미절이었고 58%는 긍정의 의미절이었다. 이 결과에서 ‘-느라고’가 이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느라고’의 의미 제약

말뭉치에서 보여주는 ‘-느라고’의 긍정 의미 후행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의미 제약에 대한 정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느라고’의 일반 현상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미 제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말뭉치의 분석에 따르면 ‘-느라고’는 이유와 목적의 의미로 정확하게 나뉘고 있으며 이유의 의미로 쓰일 때에만 부정 의미의 제약을 갖고 있다. 그런데 ‘-느라고’는 선·후행절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인해 이유와 목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느라고’의 쓰임이 이유인지 목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유와 목적을 분류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의 순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왜 식당에 가느냐라는 질문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간다.”라는 대답과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전자는 식당에 가는 이유를 후자는 식당에 가는 목적을 설명한다. 이유와 목적을 시간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유는 선행적이 후행절보다 앞선 시제로, 목적은 후행절이 선행절보다 앞선 시제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느라고’의 시간의 겹침은 계기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간의 완전 겹침인 선·후행절의 동시 발생은 이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면 목적은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기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느라고’는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고루 가질 수 있지만 ‘-느라고’의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앞서거나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유의 ‘-느라고’로, 후행절이 선행절보다 앞서고 있다면 목적의 ‘-느라고’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후행절 의미 제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느라고’의 의미에 따른 제약

의미	제약
이유	1.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먼저 발생하거나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시에 발생한다. 2. 후행절은 부정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이 있다.)
목적	1. 후행절이 선행절보다 먼저 발생한다. 2. 후행절에는 부정, 긍정의 의미 모두를 가질 수 있다.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이 없다.)

5. 결론

본고는 ‘-느라고’가 갖는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 세종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느라고’는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을 갖는다는 주장과 그런 제약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엇갈린 연구가 있지만 긍정형으로 실현된 문장의 기저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해석 이외에 이 상반된 주장을 뚜렷하게 설명해 줄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느라고’가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을 갖는지, 만약 갖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밝히기 위해 세종 말뭉치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말뭉치에서는 후행절에서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문장이 33.3%를 차지하고 있었다. ‘-느라고’의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들에 대해 추상적이고 화용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명확하고 체계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말뭉치에서 ‘-느라고’가 사용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느라고’가 이유 이외에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유의 ‘-느라고’와 목적의 ‘-느라고’를 분류하여 후행절의 의미 제약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유의 ‘-느라고’는 후행절에 부정적인 의미를 수반하는 데에 반해 목적의 ‘-느라고’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모두 수반할 수 있었다. 즉, 이유를 나타낼 때에만 후행절 부정 의미의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느라고’가 후행절 부정 의미 제약을 갖는다는 연구와 부정 의미 제약을 갖지 않는다는 연구 모두를 입증한 자료가 되었다. ‘-느라고’가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가지며 이유의 ‘-느라고’로 실현될 때에만 부정 의미 제약을 갖는다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참고문헌

- [1] 백봉자, “연결어미 ‘-느라고, -느라니까, -느라면’의 의미와 기능”, 말, 제5집, pp.77-93, 1980.
- [2] 김명희, “연결어미 ‘-느라고’의 통사 의미상의 제약, 이화어문논집, 제3집, pp.197-203, 1980.
- [3] 이상복, “연결어미 ‘-아서, -니까, -느라고, -므로’에 대하여”, 배달말, 5권, pp.55-80, 1981.
- [4] 이숙,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통사적 분석”, 말, 제10집, pp.125-145, 1985.
- [5] 김미영, 구정영,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와 제약에 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 2012(4), pp.39-42, 2012.